

佛事 전념 20년
불교미술전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170 서울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2-1522 / 구독신청: 737-8881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6 호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관진 / 편집: 김광삼 / 논설: 고은 / 인쇄: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2-1522 / 구독신청: 737-8881
발기: 2543년(서기 1999년) 11월 1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총무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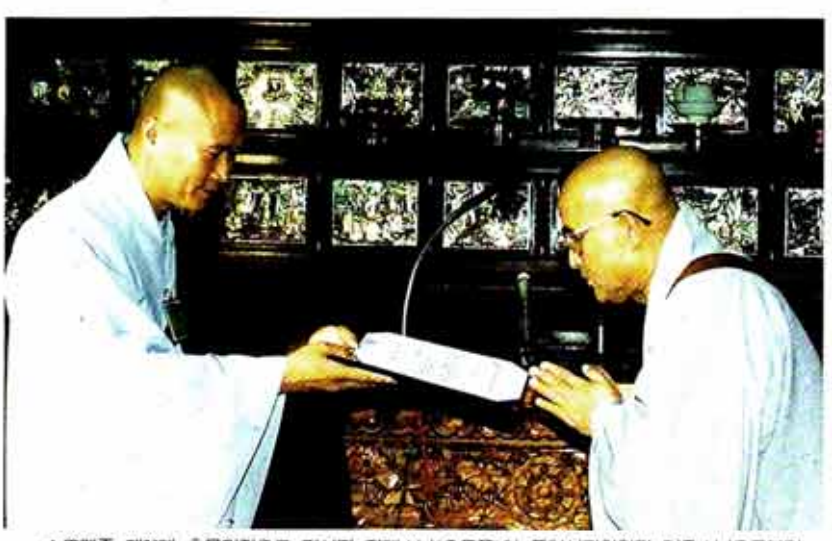
조계종의 경우, 언제부터인지 총무원을 종단의 권력기관으로 보기 시작했다. 총무원은 사찰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직영사찰의 경우 재정의 수입 및 지출, 불사의 심의를 거쳐도록 되어 있다. 토지의 처분도 총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낭비,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권력이라 본다면 권력으로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조차 없다면 종단의 유지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문제는 일처리를 하며 절차와 법에 의거했으나 하는 것이며, 행정만능주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절차를 정한 내규가 적합하지 않다면 고치고, 필요하면 내규를 재검토 일처리의 개념도를 만들어야 한다. 자의적인 일처리는 사사로운 마음이 끼여들 여지를 만든다. **행정절차 정비해야** 마립 15일 치러진 조계종 총무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총무원 운영에 대해 거론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종도를 받드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며 "종무행정 서비스 정신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며, 위에 군림하는 총무원이 아니라 아래서 심부름하는 총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는 "총무원에 집중되어 있는 종무행정의 권한을 교구본사에 이관하였으며, 각종 민원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공문에 의한 종무행정 처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총무원은 더이상 권력기관이 아니다. 차재에 총무원이 서비스 실현의 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총무원을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는 오해를 푸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조계종 30대 총무원장 정대스님

307표중 166표 얻어... 지선스님 134표 "결과 승복"

15일 선거 투표율 96.5%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정대스님은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거인단 318명(교구 선거인단 240, 중앙총회의인 78) 가운데 307명이 참석해 실시한 제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166표(52.2%)를 얻어 새 총무원장으로 뽑혔다. <관련기사 3면> 정대스님과 경쟁에 나선 전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134표, 장주스님은 2표를 얻었다. 무효는 4표, 유실 1표. 선거는 오후 1시 투표가 개시돼 3시 40분 종료됐으며, 투표에는 총회의원 77명, 교구선거인단 240명 가운데 230명등 307명이 참석해 9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선거는 새 후보와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총회의장 법동스님, 총회의원, 교구선거인단의 순서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중앙선거위는 투표 종료 후 곧바로 개표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후 5시 개표를 마쳤다. 개표를 마친 후 중앙선거위원회 의장 법동스님은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선거법 22조 및 26조에 의거 과반수의 득표를 했으므로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당선증을 수여했다.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오른쪽)이 중앙선거위원회장 덕문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의 큰 뜻으로 받아들였다. 종단 발전을 위해 정진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총무원의 주인은 총무원장이 아니라 종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인된 자세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937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한 정대스님은 1961년 전강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주사 신복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4~5대 7~11대 중앙총회의원과 총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현

제에 총무원장과 동국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종지·종공 진작 △화합 종단 △종도발달 △신도교육 △미래사회를 향유하는 종단 등 5대 정책의 실현을 공약했다. 권위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중앙선거위원의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총무원장선거법

에 따라 30대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임기는 이날부터 2003년 11월 14일까지이다.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20일 오전 10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정대스님과 30대 총무원장 당선인 인준할 예정이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전계대화상 추대안을 논의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선거 중지할 수 없다"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정화회의측 정영스님 등이 낸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과 중앙선거위원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총무원장 직무대행 임시대행자 선임신청,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을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할 144회(10월 2일) 임시총회의의 절차 및 결의내용

월동용품 25일쯤 북한행 중단합, 18일 새회장 추대

종단협의회는 9일 조선불교도연맹이 요청한 월동용품 지원과 관련 실무자회의를 열어 5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배포하면 이달 25일 선박편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단합은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중단합은 18일 이사를 열어 새 회장을 추대할 예정이다. 중단합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중단합회의는 또 30일 관문점 시설 및 장비위문 행사를 갖는다. 정성운 기자

상임이사에 헤럴스님 본사 임시이사회서 선임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김광삼)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헤럴스님(박귀남·한마음신문 광주지원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또 조직개편에 따라 이날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뉴미디어부장 위영란 <결직> 출판부장 겸 취재2부장 윤재하, 광고영업부장 겸 특별영업부장 박장훈, 관리부차장 겸 고객부차장 선정호, 편집부차장 겸 뉴미디어부차장 박재철. 정성운 기자

구산신문 참선 기행

12월 : 사자신문(법흥사) · 보덕사
12월에는 자장유사가 문수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새곳을 돌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적멸보궁을 건립했다는 사자신문 법흥사를 찾아갔다. 구산신문의 하나로 전국의 수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을 정도로 선종을 크게 떨쳤던 법흥사는 최근 선문총합로서의 옛 자취를 되찾기 위한 증흥불사가 한창입니다. 법흥사 인근 요선정에서는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74호)도 친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단종의 애사가 어려웠는 보덕사도 함께합니다.
○출발 : 12월 5일(일) 오전 7시 · 조계사앞
○회비 : 3만5천원(중식 포함)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신문 관련자료 부디페이지(www.buddhania.com)에서 보세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전통사찰 농지취득 불허

농림부, 시행규칙 개정해 놓고 '딴청' 농지취득 불허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을 가늠케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농림부에서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개정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실상사와 위봉사 정제사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했으나, 농지취득인정 발급을 거부했다. 실상사는 지난 7월 귀농하고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의 명의를 실상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농림 계획서 보완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받았다. 이에 대해 실상사의 종북스님은 "귀농하고 운영은 실업자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제사(주지 지명)의 경우 사찰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지스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9월 사찰명의로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영농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하라"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9일 농림부를 방문, "영농법인 설립은 개별사찰이 일일이 법인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치 않을 경우 농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농림부는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가능케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지명의로 등기된 농지도 증여와 취득 절차를 거쳐 전통사찰 명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행규칙은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1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관계로 신문 제작·발송이 늦어졌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공모주 청약대출 원영
불교신협 051)633-9120~3
불자님들의 범죄실 무료 이용 환영

원로 대덕스님과 종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종지 종풍을 전직하는 수행종단(修行宗團), 화합종단(和合宗團), 종도에게 봉사하는 하심종단(下心宗團), 포교와 교육에 매진하는 진법종단(眞法宗團) 사회를 구제하고 미래 사회를 향유하는 구세종단(救世宗團)의 다섯가지로 종단 운영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의 본분을 되찾아 화합 교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권의 사표이며 중생의 복권이여야 할 우리 교단이 많은 혼란과 분열상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많이 아프고 고뇌했습니다. 불조를 우려하기 부끄러웠으며 사부대중 앞에 서기도 민망했습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 법원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하여 종단의 범용이 부인되고, 종도 대중의 합의로 선출된 총무원장 스님이 자리를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종단의 본래 모습을 건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갓빛 남의 하나만 걸쳐도 세상 모두를 얻은 양 당당했던 초발심의 기개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남자의 본분으로 돌아갈 때 종단도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도 대중이 부족한 저를 가까이 선택해 주신 것은 종단의 범용을 바로 세우고 화합종단을 구현하라는 지엄한 언명이라 여깁니다. 저는 이 지엄한 병을 수행함에 있어서 천길 절벽을 등진 사람처럼 물러설 없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종도 여러분!** 저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대사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과거에 무거운 짐을 받았더라도 과오를 참회하고 남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스님들의 뜻을 항상 여쭙고, 그 뜻을 받들어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와 중진들과 수시로 종단 운영을 협의하여 사실상의 공동운영, 참여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류 문명사를 열어가는 시대의 총무원장 소임을 종도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에 부합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종무기관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지하고 감독하는 총무원이 아니라 말사의 주지 스님을 시봉하는 총무원이 되겠습니다. 스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총무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종도 대중 곁에 있는 열린 종단, 종도 대중이 참여하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종단, 그리하여 참으로 밝고 젊은 종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종도 여러분들도 총무원의 주인이 총무원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시어 주인된 자세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천만 불자 여러분, 사천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불교에 대한 심심한 애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종단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단은 각고의 참회와 각성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분사를 해결하여 해탈을 이루고자 일체의 속박을 벗어난 진심 남자의 정신을 회복하여 종지 종풍을 선양하는 청정 수행 가풍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황백 선사께서는 엄동설한의 매서움이 없고서야 어찌 매화 향기가 코를 찌르겠는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사부대중의 화합과 정진으로 원만히 극복할 때 우리 불교의 내일이 밝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1600년 역사 속에서 숭한 어려움을 사부대중의 하나된 노력으로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불자 여러분과 국민의 뜻을 항상 높이 받들어 이사원용의 화합교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도 뒤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종단의 바람직한 내일의 모습을 설계하고 소남에게 그 짐을 안기느라 불철주야 애쓰신 선거대책본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와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신 지선스님과 장주스님께서는 이대로 초야에 묻히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30대 총무원을 운영하느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사천만 국민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당선자 서정대 합장